

“압도적인 투표 참여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자”

김영록 전남지사·전남시장군수협의회, 도민 대선 투표 동참 호소 공동담화문·건의문 등 발표...사전투표일 근무시간 조정 등 당부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국민 주권시대 개막을 위한 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동참을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선8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27 장흥군청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동담화문을 통해 “전남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며 “이번에도 높은 투표 참여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선도적 역할을 해줄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전남도민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투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도민이 하나 돼 투표 참여의 물결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투표 독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29일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모두가 부담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투표 참여가 비교적 힘든 소상공인과 투표율이 낮은 청년층의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협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며 “투표는 힘, 투표는 희망, 투표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공동담화문 발표 외에도 4월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작성된 건의문과 기자회견 결과를 공유했다.

또 대선이 종료된 후 재개되는 ‘정책비전투어’와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도-시군 간 인사교류’, 부단체장 임기 연장 등과 관련해 도와 시군이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선거로 무엇보다 높은 투표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내도록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상처와 경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장흥군청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시장·군수들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기침체, 민생 불안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정의의 바로 세우고 경제를 회복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다” 며 “도민들께서 압도적 투표 참여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나선다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62억원 투입

전남도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62억원을 투입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4개소) 30억원, 과수·채소 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3.5ha) 11억원,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150개소) 17억 5000만원, 전략품목 육성(320ha) 3억 2000만원 등이다.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ha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인증받은 농업인이나 생

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소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친환경 과수·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에 1ha당 하우스 설치비 3억원을 투입한다.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49세 이하 청년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략품목 육성 사업은 과채류를 중심으로 시·군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품목별로 과수는 ha당 200만~250만원, 채소는 250만~320만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품목다양화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벼를 제외한 과수, 채소, 임산물 등 약 266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아 생산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홍콩·대만 등 코로나19 확산...전남도 “65세 이상 예방 접종”

6월까지 무료 접종 진행

전남도가 27일 최근 홍콩과 대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남도내 65세 이상 및 감염 취약계층은 오는 6월까지 무료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 중이다.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미접종자는

6월 말까지 접종 가능하며, 방문 전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전남지역 예방접종률은 20일 기준 55.3%(전국 평균 4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고위험군 2명 중 1명이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예년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고려할때 올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현재 사용 중인 백신에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다.

예방접종은 백신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접종

하는 것이 좋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도내 표본감시 결과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급 112개소를 추가해 감시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시내버스 운행 70% 유지·출퇴근 시간 택시 운행 확대 등

광주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9일 파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27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날 시청 세미나실에서 ‘2025년 시내버스 파업 대비 유관기관 비상수송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 광주교통공사, 시내버스회사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해 파업 전 대비 시내버스 운행 70% 유지, 24시간 상황실 운영, 대체 교통수단 운행 확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대시민 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광주시는 평상 시 운행 중인 버스 1000대 중 700여대(70%)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운전원 2400여명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등 1020여명(42%)은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파업이 장기화돼 빠져 운전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대수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임차 버스 등을 투입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광주시는 파업 기간 중 시내버스 운행 대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노선별 이용 인원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시간표를 조정하고 도시철도와 택시의 운영을 확대한다.

자치구, 교육청, 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연장,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 광주시·자치구·경찰청 등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내버스 기·종점, 화차지의 비노조원 버스 운행에 대한 노조원의 방해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파업 상황과 시내버스 변경 운행표, 협조요청 사항 등을 버스정류소 등에 게시하고 다양한 운·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한다는 것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 걷기 등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내버스 파업 여부는 27~28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와 28일 노동쟁의 2차 광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 정년 61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지난해 수준 동결 입장이다.

서울, 인천, 부산 등 타 시도의 쟁점인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광주의 경우 2014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반영돼 올해 협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광주지역 운전원 연평균 급여는 대전·대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파업 기간 운전원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